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장달수 / **주간** 고성진 / **부주간** 최재호 /
논설위원 박기홍 /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생도** 고명환 /
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충성대신문

제178호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 공수훈련중인 56기 사관생도들이 헬기탑승을 위해 이동하고있다.

꿈을 향한 뜨거운 도전! 한여름의 폭염도 이겨내다!

55기·56기 사관생도 충성하계군사훈련 마쳐!

본교는 55기(498명, 女20명)·56기(499명, 女50명)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하계군사훈련을 8월 14일부로 마쳤다.

이번 하계군사훈련은 유격훈련(4학년, 55기)과 공수훈련(3학년, 56기)을 시작으로 개인화기, 각개전투, 소대공격 및 방어, 화생방 등 군인으로서 필요한 기초 전기전술을 숙달하고 임관 후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여름철 폭염과 갑작스러운 호우 등 기상변화가 많았지만 훈련장의 열기는 용광로보다 더 뜨겁고 활기가 넘쳤다. 특히, 사관생도들은 공수와 유격훈련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필코 임무를 완수해 내겠다는 강한 자신감과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했다.

특히, 하계군사훈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군사훈련처는 훈련준비단계에서부터 각 부대를 방문하여 야전자료를 수집하였고, 야전부대 중·소대장들을 만나 사관생도 시절 받았던 군사훈련이 야전임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도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는 교장에서 주요 국면별 과제화된 훈련내용을 단계별 절차식으로 교육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야전처럼 생활관에서 휴식 중 조성된 훈련 상황에 따라 출동준비태세를 갖추고, 이어서 '전시전환-전술적 부대이동-집결지 작전-쌍방훈련(공격·방어)' 순으로 진행되는 소대전술훈련 모델을 정립하여 이번 훈련 간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 간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 및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도 주도의 문제해결형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임관 후 소대장으로서의 지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사훈련기간동안 훈련 과제별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WHY? 캠페인'을 적극 시행했다.

또한, 이번 하계군사훈련 간에 소대 전술훈련 모델 안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전술을 고려한 목표 일대에 철조망 설치, 기동로 상 매복진지 구축, 통제탑 기능개선 등 실전적 전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군사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훈련 전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교관들이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훈련이 끝나면 군사훈련처장 주관으로 일일 단위 안정성 평가와 실시간 온도지수를 고려한 탄력적인 교육통제로 내실 있고 안정감 있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군사훈련처장 권금락 대령은 "무더위와 장마,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로 인해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에서도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사관생도들이 야전에 나가서도 소대원들에게 존경받고, 자신감 있게 임무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4학년 고명환 생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지금 당장이라도 야전에 나가 소대원들을 지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하며, "훈련 중에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최정예 장교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간 고성진

지면안내

02 **학교소식** | 독도재단 MOU 체결
03 **학교소식** | 다목적 체육관 '단석관' 준공
04 **기획취재** | (주)풍산 박우동 대표
05 **생도광장** | 하계군사훈련 포토스케치
07 **독자투고** | 대위 김휘찬·생도 전수빈
09 **오피니언** |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1 **교양** | 건강상식·만화·명문가를 찾아서
12 **기타** | 발전재단 소식·지상군페스티벌

육군3사관학교-독도재단 MOU 체결

올바른 역사관 함양 위해 독도 교육·홍보 강화

본교는 독도재단과 지난 7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관생도들과 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독도 교육과 홍보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09년에 설립된 독도재단은 민간차원의 독도수호를 위해 국내외 여러 학교, 기관, 단체 등을 상대로 독도 관련 교육을 지속해 온 경상북도 출연 공익재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본교 사관생도 및 장병들에게 독도교육을 시행하여, 미래 육군을 이끌어 나갈 핵심인재이자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한 군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 "독도 수호의지 함양을 위해 민·군이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게 될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전문적인 독도교육을 통해 올바른 대한민국 장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달수 학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관생도들이 전문적인 독도교육을 받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조국강토 수호에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주무관 이경희

▲ 학교장(소장 장달수)과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 KEB하나은행 출장소 개소

본교는 지난 8월 5일, KEB하나은행 출장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학교장(소장 장달수)을 비롯해 교수부장, 생도대장, 행정부장 등 학교의 주요직위자와 하나은행 대구·울산본부 최영호 본부장, 대구지점 배종필 지점장 등 KEB하나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장소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하나은행 출장소 개소로 인해 사관생도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국민은행과 더불어 추가적인 금융사를 이용하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하나은행은 육군3사관학교 맞춤형 상품들을 출시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관생도 및 장병과 군 가족 모두가 폭넓은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 대구·울산본부 최영호 본부장은 "KEB하나은행 출장소는 국방부 예하부대 및 기관에 입점한 첫 번째 출장소로 의미가 깊다"며 "향후 全 장병 및 사관생도, 군인가족들에게 폭넓은 금융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사 김현석

▲ 생도회관 앞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직위자와 KEB하나은행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스마트한 인재 선발

▲ 지원자들이 생도선발 3차 시험 중 면접을 보고있다

57기 정시/58기 예비생도 선발 시험

본교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8주간에 걸쳐 2020년에 입교할 57기 정시생도와 2021년에 입교할 58기 예비생도를 선발하는 시험을 진행하였다.

총 3차로 구성된 선발과정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고사, 3차 신체(체력)검사 및 면접으로 구성된다. 이중 1차 선발은 대학성적 또는 고교내신과 수능성적(공인영어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2차 선발은 영어듣기 평가와 간부선발도구를 활용한 지적능력 평가로 진행된다. 최종 3차 선발은 신체검사, 체력검정, 인성검사, 심층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3차에 걸친 선발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총 550명이며, 이중 여자생도는 55명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57기 정시생도가 10월 25일, 58기 예비생도가 10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모집선발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평가실장 천윤환 대령은 "선발평가는 학교의 전역량을 집중한 가운데, 엄격한 절차와 공정성을 토대로 진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대학 학위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지적능력은 물론, 장교다운 인성과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과 튼튼한 체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라고 선발과정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한편, 올해 입시경쟁률은 57기 정시생도가 427명 모집에 3,317명이 지원해 7.7: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58기 예비생도가 100~150명 모집에 988명이 지원하여 약 7.5:1을 기록하였다. 특히 여자생도는 55명 모집에 360명이 지원해 약 6.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년과 경쟁률은 비슷하지만 지·덕·체를 겸비한 수준 높은 지원자들이 더욱 많아져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수 인원들이 대거 학교에 입학하여 정예장교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무관 길진규

충성대 만평

화랑 김유신처럼 '단석관' 에서 심신단련!

사관생도 심신단련 위한 다목적 체육관 '단석관' 준공

본교는 지난 8월 13일, 학교장(소장 장달수)을 비롯하여 교내 주요인사와 시설건립 관계자 그리고 체육학과 교수와 사관생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다목적 체육관인 '단석관'의 준공식을 가졌다.

2018년 5월 4일부터 올해 8월 2일까지 16개월간의 공사 끝에 준공한 단석관은 체육활동과 문화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개관하였다. 500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2층 건물과 4면의 족구장으로 구성된 단석관은 건물 1층에는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을 할 수 있는 주경기장과 구름사다리, 짐로프 등 순환식 체력단련 시설을 구비하였고, 2층에는 크로스핏 전용실, 조깅 트랙을 설치하여 사관생도들의 심신단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무대와 348석의 관람석, 방송실,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갖추어, 체육활동뿐 아니라, 문화 · 예술공연과 발표회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 다목적 공간으로서 그 활용성이 기대되고 있다.

본교는 교내 2번째 다목적 체육관으로 신축된 '단석관'이 사관생도를 비롯한 장병 및 군무원의 심신을 단련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체육학과장 안경일 교수(중령)는 "단석관은 신라의 대표 화랑이며,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이 화랑도 시절 심신을 단련하고 천지신명으로부터 하사받은 보검으로 주위의 돌들을 베어내며 무예를 다졌다고 전해지는 경주의 단석산(斷石山)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하면서, "화랑의 후예인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이곳에서 심신을 단련하여 조국을 수호하고 통일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명(作名)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전해왔다.

대위 이 지 수

▲ 학교장(소장 장달수)과 시공사 대표 및 주요 직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자생도 탐방기

국내 문무탐방을 다녀와서

공수훈련을 마친 3학년(56기) 생도들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1 · 3중대는 남부지방, 2 · 4중대는 중부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국내문무탐방을 다녀왔다. 기자는 2중대 소속으로 카이스트에서 칠곡 호국평화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지방 코스를 다녀왔다.

이번 탐방에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이다. 말로만 듣던 카이스트의 최첨단 강의실과 실험실, 익숙하게 학교를 누비는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보면서 이곳이 과학기술의 산실이며 세계 유수의 대학이란 것을 실감했다. 학생들은 개방형 연구실에서 현미경에 얼굴을 파묻고 각자의 연구에 몰두해있었다. 이 모습을 보며, 장차 국가의 존망을 책임질 사관생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카이스트의 교정을 둘러본 후,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백제문화단지로 이동했다. 백제문화단지는 17년간의 고증과 제작을 거쳐 백제의 사비 시대를 구현해낸 곳이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문화단지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 고구려와 신라의 침입으로 대다수가 소실되었지만 백제의 기록은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백제의 문화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말로 정리된다. 백제의 왕이 사신을 맞이한 '천정전'에는 왕과 왕비의 대례복, 평상복 등 다양한 의복과 어좌가 당시를 묘사해주고 있었다. 특히 성왕 홀로그램이 4개 국어로 되어있고 안내를 해주니 꼭 한 번 설명을 들어보길 바란다.

둘째 날 행선지는 독립기념관이었다. 겨레의 탑은 코흘리개 꼬마가 많은 시간이 지나 군복을 입고 방문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굳센 모습으로 당당히 서있었다. 겨레의 탑 너머에는 거대한 독립기념관 현판이 보였다. 독립기념관은 총 4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관은 공사중이었다. 우리는 3관과 4관에서 각각 항일투쟁의 역사와 인류보편의 가치인 평화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연출되어 있었다.

마지막 날 우리들은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에 들어서자 중앙 로비에 위치한 구멍 난 철모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숙연한 마음이 앞섰다. 칠곡은 6 · 25전쟁 격전지 중 전사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국군은 여기를 7번 빼앗기고 8번 되찾는 혈전을 벌였다. 칠국 호국평화기념관은 당시의 참상을 축소된 모형으로 잘 구현했다.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의 또 다른 강점은 다양한 체험이었다. 마을 세트장을 구현하여 전시상황을 체험하게 해주었고 끊어진 다리 모형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느껴져 더욱 안타까웠다. 초소체험, 사격체험, 보급품 들어보기 등 다양한 체험들은 전시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이 해내야만 했던 다양한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전시관 한편에 설명해놓은 학도병들의 활약상은 지금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고 전장의 참혹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갖게 해주었다.

문무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느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나는 불꽃으로 살다가려하오." 라고 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의병활동을 펼쳤던 그 주인공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들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국가방위의 소임을 다하는 장교가 될 것을 다짐해본다.

56기 기자생도 정 아 란

만나고 싶었습니다!

"1976년 공채 1기로 입사해 자주국방 50년 외길을 걷다"

㈜풍산 대표이사 박우동 사장

▲ 56기 정아란 생도(좌)와 충성대신문사 주간 고성진 중령(우)이 ㈜풍산 박우동 대표이사(중앙)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풍산은 총기에 사용되는 소구경 탄약부터 포에 사용되는 중대구경 탄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탄약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주국방에 기여한다는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풍산 대표이사 박우동 사장은 풍산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써내려가 100년 기업으로 도약·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Q 육군3사관학교와 풍산 모두 올해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사와 함께 걸어온 풍산에 대한 간단한 소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풍산은 1968년 창립 이래 동 가공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에서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풍산은 70년대 초 방위산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탄약의 대량 생산과 국산화를 통한 자주국방 및 군 전력향상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또한 군용탄과 별도로 수렵 및 경기용 스포츠탄을 개발, 전략 수출하는 등 세계 유수의 탄약 전문메이커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고성능 탄약과 한국형 독자모델의 개발에도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생산체제를 활용한 탄약 및 플랜트 수출 확대를 통해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풍산은 5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며 첨단소재산업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산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요?

A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사업 분야에서 1등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일류기업, 시장을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점유율이나 제품, 매출 같은 외형적 측면뿐만 아니라 풍산이 세계 최고라 여길 수 있는 무형의 가치도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안정적 노사 관계 등 지난 50년간 닦아온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 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신동분야 최고기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방산분야에서 국가안보의 디딤돌이자 세계 수출의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Q 현재 풍산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남다른 경영철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활동은 무엇인지요?

A 풍산의 창업주인 故 류찬우 회장의 경영 철학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류찬우 회장은 "진정한 기업인이라면 국가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풍산은 자주국방에 기여한다는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풍산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서애선생 기념 사업회, 독립기념관 건립 후원, 다문화가정 지원,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 기증, 프레지던츠컵 후원 등의 문화체육진흥 활동, 병산교육재단 등 교육장학 사업,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협력업체를 통한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의 활동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Q 풍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군수품 중 가장 잘 알려진 탄약 외 현재 풍산에서 생산하여 군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풍산은 권총탄에서부터 대공포탄, 박격포탄, 곡사포탄, 전차탄, 함포탄 등 모든 종류의 탄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약을 국산화 했습니다. 추진화약 기초연료부터 완성탄에 이르기까지 탄약 생산 전 과정이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풍산은 탄체(彈體) 단조 기술을 기반으로 기동장비용 로드휠을 비롯, 자동차, 기계, 항공우주 등 각종 산업용 단조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Q 풍산이 생산하는 제품 중 동파이프가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제품이 아닌 일반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풍산의 신동사업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동 및 동합금 소재를 생산, 공급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빛내고 있습니다. 동 및 동합금 판·대, 소전, 봉·봇드와 동 가공품, 일부 비철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수출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PMX와 태국 Siam Poongsan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글로벌 판매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설비의 고도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박판, 바이메탈 소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동제품의 고품질화 및 수출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 풍산은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과 매우 밀접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인연인가요?

A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6백여 년간 대대로 지켜온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서애 류성룡 선생의 출생지이며 국내 각계각층의 인재가 배출된 지역입니다. 풍산은 경북 안동의 유서 깊은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충효당의 보존 및 영모각의 건립을 지원하는 등 전통문화의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산고등학교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둥이 될 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Q 영남대학교 ROTC 11기 출신으로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신 군의 선배이신데, 군 복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화학장교로 임관하여 보병 제3보병사단 화학지원대장으로 처음 근무할 때 전 사단 병력에 대한 화생방 교육을 실시하고 부대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 초급장교로서 직할부대의 장을 맡아 짧은 복무기간이었지만 전 사단 병력에 대해 화생방전에 대비한 훈련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억에 남았고 이를 통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보생 시절부터 자치회 간부를 맡았고 화학학교 훈련기간 중 학생장을 맡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규모는 작았지만 직할부대장으로 임관해서 지휘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군 전역 후에 풍산에 입사하게 되신 동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풍산이 1973년 방위산업에 진출하고 3년 뒤인 1976년 공채 1기로 입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닥부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미군이 운용하는 탄약 관련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풍산은 미국 기술의 라이선스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 핵심 기술들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국산화를 통해 풍산은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탄약 수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풍산이 있을 수 있었던 주요한 계기는 방산업계 최초로 종합생산보전활동 TPM을 도입한 것입니다. TPM은 사람과 설비, 시스템의 체질을 바꾸고 업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품질혁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전 직원이 본인의 업무 외에 교육과 연구까지 해야 하므로 시행 초기에는 노조의 저항도 있었지만 이제는 TPM을 통해 기업의 물량이 늘어나고,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통해 수입이 증대되고 노동환경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TPM이 바탕이 된 풍산의 가격·품질 경쟁력, 납기 준수 역량은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수출 확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Q 앞으로 수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 정예장교로 거듭날 사관생도들을 위해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3사관학교 생도 여러분의 땀방울이 세계 평화와 국가안보의 초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 깊이 믿고 있고, 듬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고 사고 없는 하계군사훈련을 완수하기를 응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풍산가족 모두는 국가 안위에 기여한다는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 우리 군의 전투력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기 기자생도 정 아란

55기 기자생도 김 유 란 & 홍 석 주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본교 3·4학년 생도들은 공수훈련과 유격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필승의 정신전력을 연마했다."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무더위속 담금질 '유격·공수'

공수훈련장에서 생도들과 기념촬영하는 학교장

본교는 55기(498명, 女20명) ·56기(499명, 女50명)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한 하계군사훈련을 8월 14일부로 마쳤다. 유격훈련(4학년, 55기)과 공수훈련(3학년, 56기)은 물론 개인화기, 각개전투, 소대공격 및 방어, 화생방 등 군인에게 꼭 필요한 전기전술과목들을 연마하며 정예장교로 다시 태어났다.

▲ 56기 여생도 들이 낙하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생도들이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구급법 교육중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

▲ 각개전투훈련중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생도들

▲ 동기들간에 우의를 다지고 있는 55기 생도들

▲ 로프를 이용한 부상자 구조 훈련을 진행하고있다.

훈육대 소개 : 6중대 강인함의 상징, 강감찬 중대

#1 중대의 역사 · 상징

6중대를 상징하는 인물은 귀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둔 강감찬 장군이다. 거란은 고려를 수차례 침략했었고, 1018년 거란의 세 번째 침략에서 강감찬은 거란의 대규모 침략에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10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침략했던 거란군에게 기습, 급습 등의 작전으로 퇴각하게 만들었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거란군과 강감찬의 고려군이 마주친 곳이 바로 '귀주'이다. 전세가 불리한 것을 느낀 거란군이 북쪽으로 달아나자, 고려군은 이들을 추격하여 거의 몰살시켜 거란군이 본국에 도착했을 때는 수천 명의 병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6중대는 강감찬 장군의 구국의 의지를 물려받은 중대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준비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중대가

대한의 남아로 태어나
충성대의 부름 받아
최고의 간성이
되기 위해 우리 모였다
강감찬 장군의 기를 받아
전진해 나가는 6중대
충성대의 중심 충성대의 선봉
맹호 6중대 악!

#3 훈육관을 만나다 – 훈육대장 소령 박정훈, 훈육장교 소령(진) 황도현

Q 훈육에 대한 가치관 및 방향성이 궁금하다

훈육대장 : 가치관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24시간이 있어도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사람이 바뀐다.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훈육의 방향성은 생도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다. '김성근식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 김성근을 혹자들은 야구선수들을 가혹하게 트레이닝한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이들은 선수들을 치열한 프로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워주었다고 말한다. '김성근식 리더십'을 발휘하여 생도들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고 싶다.

훈육대장 박정훈 소령

훈육장교 : 크게 4가지를 강조한다. 올바른 인성과 품성, 강인한 체력,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능한 장교, 열정이 있고 패기 있는 장교. 먼저, 올바른 인성과 품성은 예의와 개념이다. 특히 동기생과 하급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체력의 경우는 부하를 압도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어야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능한 장교는 쉽게 말해 언행, 품행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말실수를 하는 순간 나의 품격도 떨어지고, 그 부대의 사기와전투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정 있고 패기 있는 장교다. 열정이 없으면 임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 열정 있는 사람이 자신감도 있고 열심히 한다. 패기는 목소리, 군기에서부터 보여진다. 군 생활 10년, 20년을 하더라도 제식과 목소리는 당당하고 크게 해야 장교다운 것이라 생각한다.

훈육장교 황도현 소령(진)

Q 새로운 2학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생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훈육대장 : 4학년들은 임관이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고, 3학년들은 입교 후 적응을 완료한 시점이다. 2학기 때는 좀 더 성숙하고 완성된 생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학업과 체력적인 측면은 기본이고, 훈육대장으로서, 군 선배로서는 인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사관생도로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보람차게 보냈으면 한다.

훈육장교 : 생도생활은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4학년 생도들은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를 할 시기이다. 3학년들은 아직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고, 4학년이 되었을 때 3학년들에게 어떤 선배가 될 것인가 생각하며 새로운 학기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본인 포함 많은 선배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생도생활 간 어학에 매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학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요소이다. 생도생활은 임관후의 목표를 위한 역량을 갖추는 시기이다. 영어, 제2외국어 공부에 많은 투자를 하면 좋겠다.

Q 2차 일반학기에 3, 4학년 생도들과 이런 추억을 만들고 싶다

훈육대장 : 우리 6중대 인원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9년 후반기를 후회 없이 모두 함께 보냈으면 한다. 하루하루 생도들이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

훈육장교 : 우선 생도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꼭 만들고 싶은추억은 훈육장교가 4분기에이동을 하는데, 사진을 좀 많이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진 속에 남겨두고 싶다. 이 시기는 나에게도 또한생도들에게도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들이다. 사진으로 남아있다면 10년 뒤에 내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앨범을펴보면 많은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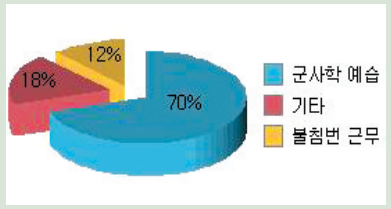
Q 6중대는 ~ 다

훈육대장, 훈육장교 : 맹호 6중대는 전 생도가 단합되어 어느 중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관생도 집단의 표본, 모범 중대이다.

55기 기자생도 현 선 학

생도 앙케이트

군사학기를 진행하며 힘들었던 점



충성대신문사에서는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군사학기 중 힘들었던 점'을 주제로 투표를 실시했다.

총원 993명중 76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결과 '군사학 예습'이 532명(약 70%)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불침번 근무'가 93명(약 12%)으로 높게 나왔으며, 이어 '기타' 134명(약 18%)순으로 나타났다.

투표 결과 3·4학년 모두 '군사학 예습'이 힘들었다고 답한 것은 아직 교관으로부터 배우지 않은 과목들을 전날 M-KISS나 교범으로 혼자 공부를 하고 다음날 바로 선행평가를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3학년 생도들은 처음 겪는 군사학기이기 때문에 군사학에 맞는 공부방법을 알아가는 단계라서 힘들었다고 했으며, 4학년 생도는 전술학을 공부하며 자신만의 전술을 구상하는 일과, 임관종합평가에 대한 부담감, 3학년 때보다 더욱 심화된 학습내용으로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어려웠던 일로는 '불침번 근무'가 선정되었다. 일반학기 때는 불침번 근무가 없었는데 군사학기를 시작하면서 전 생도가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되었다. 가뜩이나 군사학 예습으로 인해 잠을 줄여가며 공부해야 하는 상황과 겹치면서 피로가 급격히 쌓여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간관계', '무더운 날씨', '식수 부족', '식사량 부족' 등이 있었다. 일반학기에 비해 높은 강도의 교육훈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는 모두를 지치고 짜증나게 만들었다. 또한, 새로 편성된 중대에서의 생활 간 타 중대에서 온 인원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마찰은 인간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해주었다. 이외에도 무더운 날씨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해 식수가 많이 필요한데 부족해 갈증을 이겨내기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우리 생도들은 강하고 스마트한 장교로 거듭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속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직 학교에서 군인화를 겪는 과정이므로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국가안보를 생각하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동기들과 서로 도와주며 채워나가고 있다. 주변에서도 "너는 잘 해왔고 잘 할 수 있어!"와 같은 격려와 칭찬으로 힘을 북돋아주면 어떨까? 55기 기자생도 박 동 주

생도의 문화 사관생도의 문화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문화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서양에서는 문화(culture)는 경작이나 지배를 뜻하는 라틴어(colore)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즉, 문화는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의미한다.

군대문화는 military culture로 라고 말한다. 군대와 문화를 합친 합성어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군대와 문화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군대에서 문화는 '장병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생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며 행위의 지침이다.

현재, 군에서 원하고 있는 군대 문화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율적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것은 지키며 자제하고 절제하며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만약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면 결국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들은 일반 사회인들보다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하고 규율과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절제된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연스럽게 사관생도만의 문화가 생겨났다. 일예로 기훈 4중대 인원들은 기초군사훈련 때 '쉽지 않네'라는 단어를 유행처럼 만들어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충성기초훈련을 버텼는데 바로 이것이 생도만의 문화인 것이다.

우리 사관생도들은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생도문화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만큼 지위에 맞게 품위있는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밑거름삼아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로 성장해야 한다. 파란색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장교로 임관하는 그날까지 긍정적인 문화만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사관생도들이 되자.

56기 기자생도 송 승 환

독자투고 위기를 기회로, 주도권의 힘!

대위 김휘찬
(제26전차대대 군수과장)

1941년 6월 22일, 302만 대군으로 소련을 침공한 독일은, 개전 초기 압도적인 기동전 능력을 바탕으로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의 코앞까지 진격하였다. 독일군은 기갑부대와 전술공군의 제병협동을 통해 소련군을 격파해나갔으며, 전장의 '주도권(initiative)'을 확보하여 독일군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소련군을 포위 섬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신장된 보급선과 혹한의 추위, 절박한 소련군의 반격으로 인하여 독일군은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결국 1943년 초, 스탈린그라드에서 오히려 소련군이 독일 제 6군의 25만 명을 포위 섬멸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략적 주도권은 소련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첫 대승으로 전략적 주도권을 잡은 소련군은, 전력이 약화된 남부지역의 독일군 잔여부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약 3개의 집단군을 밀어 넣어 쇄도해왔다. 독일의 '에리히 폰 만슈타인' 원수는 자신이

가진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기갑부대들을 총동원, 사방에서 몰려오는 소련군에 대응하여 기동방어를 실시하며 고군분투하였으나 상황은 점점 걷잡을 수 없었다. 즉, 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는 그저 적의 공격을 기다리다 그에 대응하기에만 급급할 뿐, 현 상황 자체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만슈타인은 주도권 회복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는 소련군으로 하여금 '작전적 목표 달성'이라는 미끼에 이끌려 보급역량을 뛰어넘는 종심기동을 하도록 유도한 이후, 기갑부대의 역습으로 소련군을 역으로 섬멸한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결국, 최정예 'SS 무장친위대'를 위시한 독일군은 번개 같은 기동으로 소련군을 다시 역으로 포위, 소련의 3개 집단군을 포위 섬멸함과 동시에 동부전선에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는 만슈타인의 과감한 결단과 대담한 기동으로 일궈낸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동방어의 진수로써, 성공적인 기동전 방어의 사례로 영원히 빛나게 되었다.

주도권을 두고 싸운 위의 전투사례가 우리 생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도권'의 중요성이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군의 주도권은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 주도권을 바탕으로 아군의 계획과 방책을 적에게 강요하여야 하며, 이것은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先勝求戰)'는 손자병법의 가르침과도 다른 것이 없는 병법과 군사학의 진수일 것이다. 이처럼 전사(戰史)가 생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군사학적 전문성과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는, 우리 생도들이 향후 우리 육군의 군사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만슈타인 원수의 지휘사례 또한 생각해볼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는 가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압도되어, 대응에만 급급한 채 끌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빠른 상황판단과 과감한 결단,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상황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같은 교훈이 향후 최정예 장교 육성과정을 마친 후배 장교들이 야전으로 나와 우리 육군의 일원이자 주역으로서, 주어진 상황에만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상황'을 만들어가는 멋진 소대장, 멋진 장교로 성장해가기를 선배장교의 한 명으로서 야전에서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한다.

독자투고 80번이 아니라 800번이라도 창공을 향해 뛰어내리겠습니다!

생도 전수빈(5중대/56기)

어릴 적부터 하늘이 좋았던 나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다. 저 높은 창공을 날며 세상을 내려다보는 새의 기분은 어떨까라는 순수한 호기심이 나중에는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열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늘날기에 도전하여 지난해 6월, 스카이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까지 80여 회의 점프를 하며 하늘을 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올해도 또 다른 방식이지만 하늘을 날게 되었다.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가 된 나는 지난 6월 말, 3학년 동기생도들과 함께 3주간에 걸쳐 경기도 광주에 있는 특수전학교에서 공수기본훈련을 통해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공수훈련은 공중수송을 통해 적지에 기습적으로 낙하하여 전술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적의 주요시설을 파괴 및 교란하는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한다. 사관생도들은 장차 초급장교로 임관하여 군의 지휘관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에 필수적으로 공수훈련을 받아야 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동기생도들도 선배들의 전례를 따라 특수전학교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았다.

사실 공수훈련을 앞두고 창공을 난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주위의 많은 생도들은 훈련과정의 어려움과 하늘에서 낙하산 하나에 의지해 뛰어내려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자연스레 주변에서는 스카이다이빙을 통해 이미 낙하산을 경험을 한 내게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동기생도들은 내게 '공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다며 부러워했지만 "매도 맞아본 사람이 아픈 줄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더욱이, 지난해 스카이다이빙 중 낙하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예비 낙하산을 개방해서 겨우 착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이번 공수훈련이 결코 마음 편한 것은 아니었다.

예상대로 낙하 전까지의 훈련은 정말 혹독해서 유경험자인 나에게도 쉽지 않았다. 공수훈련을 받는 3주 동안 혹서기로 인한 일과 시간 조정으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헐떡고개'로 불리는 급경사를 몇 번이고 넘어가며 5km를 뛰었다. 실전에서 정확한 동작으로 착지하여 부상을 입지 않도록 지상착지연습, 공중동작 및 모형문 훈련을 수없이 반복해야 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 한다는 11m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모형탑(막타워) 훈련부터 낙하산 메고 달리기, 낙하산 접기 훈련 등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었다.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목은 갈증으로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와 매 순간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나와 우리 동기생도들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외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견디어 나갔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 함께 해준 동기생도들이 있었기에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가슴에 공수휘장을 부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강도 높은 훈련은 몸을 고달프게 했지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날로 체력이 커져가던 3주 무렵, 드디어 강하를 하게 되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하늘이지만 사관생도 신분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 바라본 이날의 하늘은 새로웠다. 아마도 국가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로 사관생도의 길로 들어선 지금, 취미가 아닌 조국을 위해 창공을 날아야 했기에 더 각별히 다가온 듯하다.

순서에 의해 동기생들과 차례로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육군3사관학교 입교에서부터 공수훈련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지나갔다. 왠지 모를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그동안의 고난들은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발이 땅에 닿았을 때에는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스카이다이빙 자격증을 딸 때와 너무나 다른 기분! 그것은 한 개인의 막연한 호기심과 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공을 날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정예장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 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 군인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중근 장군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고 하셨듯이 군인의 길이 수많은 고비와 고난의 연속이겠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80번이 아니라 800번이라도 창공을 향해 뛰어내릴 것을 다짐해 본다.

사 설

「학교 미래비전 2030」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학교의 비전과 전략을 묻다

올해로 개교 51주년을 맞은 학교는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위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교의 미래상을 제시할「학교 미래비전 2030」의 수립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와 인적자원의 감소, 대학교육의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AICBM(AI: 인공지능, IoT: 사물인터넷, Cloud: 인터넷 기반 데이터 관리, Big Data: 빅데이터, Mobile: 모바일)의 인간 대체를 경험하고 있다. 학교도 이러한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학교 미래비전 2030」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학교는 우수 사관생도의 선발 및 양성,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학위교육과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군사훈련의 실시, 군 관련 학술 · 연구활동을 통한 군 Think-Tank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속도를 고려했을 때,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육군을 주도하는 정예장교 양성을 위한 다양한 비전과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만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더욱이 이것은 '분야별 전문가 및 통섭형 인재육성'과 '최첨단 과학기술기반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야전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육군비전 2030 인재상) 양성이라는 군의 수요 충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미래비전 2030」은 최우선적으로 SWOT 분석기법(학교의 강점 · 약점 · 기회 · 위협분석)을 통해 학교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혁신과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의 특성과 환경(다양한 경험 및 특정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우수인재로 구성)에 적합한 개념설정 및 세부추진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등 매우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학교 미래비전 2030」은 학교의 목표를 '미래 육군을 주도할 통섭형 정예장교 양성'으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제반분야를 융합하여 통섭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열린 마음을 통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한다고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학교의 비전방향은 4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홍보 전략의 발전과 우수생도 선발 및 입시제도가 개선된다.

둘째, 특성화된 교육체계의 발전이다. 학위교육에서는 교육과정 발전 및 교육역량을 강화한다. 군사교육에서는 미래 야전에서 요구하는 군사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전사기질의 전투체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바른 인성과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함양에 집중할 예정이다.

셋째, 스마트한 교육환경(시스템, 시설 등) 및 최적의 지원체계(물자, 의료 등)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교육체계 및 스마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학교시설과 훈련장을 첨단 과학화 기반시설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지원체계(Smart Service System)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육군을 선도할 최첨단 연구센터의 조성을 위해 학교 연구자산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육군의 최고 Think-Tank의 역할의 핵심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며 AICBM과 연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제 학교 구성원 모두는 일심동체가 되어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혁신적인 학교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학교 미래비전 2030」은 상급부대 비전 2030을 구현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와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미래 육군을 주도할 통섭형 정예장교 양성"을 위한 학교의 청사진을 제시함은 물론 학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 핵개발에 관한 소고(小考)

충성대 칼럼

소령 최 준 호(군사훈련처 정신전력교관)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위협이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018~2019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으로서 이와 관련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은 6 · 25전쟁 직후인 1956년 구소련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북한 과학자를 파견하여 핵 기술을 습득하였다. 1963년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도입, 1965년부터 영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하였다. 1980년대는 영변지역에 5MW급 흑연감속로를 비롯한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 등을 건설 ·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며,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알려지게 되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 첫 합의는 1992년 '한

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으로 남과 북 모두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합의하였다. 1994년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였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이 확인되면서 이 또한 파기되었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6자 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10.3합의 등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핵 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과 11월 29일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조시킨 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입과 금융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과 외화획득 경로를 차단하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

김정은은 2018년 4월 4 · 27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이후, 5월 25일에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하였다.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한데는 의미가 있겠으나, 핵 실험장을 폭파하기 전인 2018년 4월 20일,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과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 사업이 완결되었음으로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자신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정책노선을 변경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핵 실험장을 폭파한 것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보기 어렵고, 정책노선에서 핵무력 건설이 빠진 것은 병진노선의 성공적 달성과 핵무력을 토대로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올해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충돌하면서 회담은 결렬되었고, 북한은 5월부터 미사일과 신형 발사체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합의와 파기, 도발의 반복된 행태에서 다음의 교훈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는 비핵화를 위한 약속의 단계로, 합의가 곧 이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얼마나 실질적인 비핵화를 달성해 나가는가. 즉,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되기 전까지 유엔 대북제재는 지속되어야 한다. 어렵게 조성된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한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셋째, 설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으며, 비핵화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 과정에서 또다시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대화 노력은 필요한 과정이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으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된 것이 아니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과정이지 비핵화가 달성된 것이 아니다. 군은 국가와 국민에게 단 1%의 위협이 되더라도 이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하며, 흔들림 없는 정신적, 실질적 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군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붕정만리 기불탁속

사회 저명인사 칼럼

김 재 홍(전 KOTRA 사장/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누구나 인생을 바꾸는 한 마디 말이나 글을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가슴에 오래 남아 인생의 좌표가 되는 말들이 있다. 스승이나 부모에게 들은 한 마디 말이거나, 책에서 접한 한 줄의 글일 수도 있다. 내게도 삶의 이정표가 된 말씀이 있다.

더 넓은 세상에서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정진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는 큰 인물들이 되길

1976년 고등학교 졸업식 날, 당시 한문을 가르치시던 담임 선생님께서 청운의 꿈을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큰 가르침을 주셨다. 칠판에 큰 글씨로 '사별삼일(士別三日) 괄목상대(刮目相對), 붕정만리(鵬程萬里) 기불탁속(飢不啄粟)'이라고 쓰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비는 사흘을 떨어져 있으면 눈을 부비고 바라볼 정도로 자신을 정진해야 하고, 큰 새는 먼 길을 날아가는 도중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조(粟)는 쪼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니, 부디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정진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는 큰 인물들이 되길 바란다."

그날 이후 나는 은사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이 종종 떠올랐다. 행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힘이 부칠 때나,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누구나 살다보면 근시안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큰 방향을 잃을 수 있고, 정도(正道)에서 벗어나 편법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부덕(不德)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을 탓하기 쉽고, 작은 공적을 다투느라 사리분별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눈앞의 이익만을 좇지 않고 긴 호흡으로 멀리 보면서 행동하고자 했다.

평소에도 은사님은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는 고전과 한시를 많이 들려주셨다. 춘향전의 어사출두 장면에 탐관오리 때문에 고통 받는 백성들을 묘사하는 한시가 등장한다.

'금준미주(金樽美酒) 천인혈(千人血)/금동이에 담긴 맛있는 술은 뭇사람의 피요, 옥반가효(玉盤佳肴) 만성고(萬姓膏)/옥쟁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살점이라.'

이 한시를 지금까지 암송하는 것을 보면 은사님에게 받았던 영향이 꽤 컸던 것 같다.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 편에 이런 멋진 문장이 나온다. 혹시 누군가의 인생에 등대가 될지 몰라 소개해 본다.

'무릇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 파인 곳에 물 한 잔을 부으면 검불은 떠서 배가 되지만, 잔을 얹으면 바닥에 닿고 만다. 물은 얕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바람이 두텁지 않으면 큰 날개를 실을 힘이 없다. 그러므로 9만 리를 솟아올라야 날개를 띄울 바람이 아래에 쌓이게 된다. 그런 다음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지게 되는데, 누구도 그 앞을 막지 못한다. 그런 후에야 아득한 남쪽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이다'

'가까운 들로 나가는 사람은 세 끼만 준비해도 돌아와 배가 부르지만, 백리를 가려는 자는 밤새워 방아를 찧어야 하고, 천리를 가려는 자는 석 달은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매미나 비둘기들이 어찌 이를 알겠는가'

큰 새가 먼 길을 가듯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지 않고 더 크게 멀리 보고 나아가는 생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앞날을 응원한다.

지능과 감각 사이 I : 시각에 대하여

미래의 군사발전 이야기 ③

제갈덕주(꿈창작연구소 소장)

지능이란 외부로부터 감각된 정보들에 대한 해석과 처리 능력이다. 빛이나 소리를 통해 외부로부터 전달된 감각정보를 해석해서 그것이 어떤 사물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1단계이며, 사물의 행위를 인식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2단계이다. 무인 기술 가운데 자율형 기계의 동작은 이러한 사고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학습한 결과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일어섰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걷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처럼 지능형 로봇은 기계학습을 통해 정보를 축적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생성해 낸다.

지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감각 과정에 대한 학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어서 외부 자극을 신체의 감각기관에 맞게 나누어서 받아들인다. 그 후 머리 속에서 하나의 영상으로 다시 재구성해 낸다.

시각정보에 대한 해석 과정은 주로 구글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기초 단계에서는 구글 이미지 검색 등을 반복 적용하여 동영상 속의 특정 대상(고양이, 개, 사람 등)을 분별해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딥러닝을 통해 그림 속의 대상을 다른 대상과 분리시키고 그 분리된 대상이 어떤 종에 해당하는 지를 파악해 내는 것이 초창기 연구였다. 이때 초창기 딥러닝은 인간의 특징 포착 방식과는 다른 은닉층을 찾아내는 데 있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때 주로 실루엣이나 울음소리를 통해 구분한다. 그런데 이러한 직관을 수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의 직관이 작용하는 원리를 아직 규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대신 기계에게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면서 분류를 시켜보면 인간이 미처 생각조차 하지 못한 특징을 찾아내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변별 자질(구별되는 특징)을 찾아낸다. 이것을 딥러닝에서는 은닉층의 발견이라고 부른다. 기계는 이러한 은닉층을 학습해 두었다가 사진 속의 동물을 구별해내는 게임에서 승률을 높여간다. 이렇게 해서 대상군을 넓혀나가면 대다수의 동식물과 사물을 구분해 낼 수 있게 되어 마침내 감각 생성을 위한 1단계 과정이 완료된다.

레이더, 라이더, 음파 측정의 거리 정보를 360도로 수집하여 대상 인근의 공간 구조를 파악하는 시대

두 번째 단계로는 정지된 화면에 변화를 주어 동영상 속의 동일한 대상을 연결시키고 그 연결 과정을 통해 '움직임'을 포착해 내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움직임'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해석해 내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구공이 움직일 때 그 농구공의 동선을 포착하여 '상하좌우전후'와 같은 방향 가운데 어디를 향해 이동하였는지를 해석해서 언어로 출력하도록 한다. '농구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와 같은 것이 가장 단순한 사례에 해당한다.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생성된 알고리즘과 언어 정보를 통합시키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는 앞의 방식과 반대로 학습을 시킨다. 어떤 사람이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의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어 학습시킨다. 예를 들어 특정 드라마를 보면서 자동차의 움직임에 대해 시청자가 느낀 점을 묘사하듯이 작성한다. '검은색 벤츠가 태양이 찬란히 빛나는 해변가를 질주하고 있다'와 같은 분장을 영상과 연결시킨다. 이와 유사한 환경의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장 속에 나오는 특정 키워드들이 영상 정보와 매칭되도록 반복 학습을 시킨다. 이것이 자동차의 주행 정보에 대한 인간의 언어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과정이다. 앞에서 생성된 대상의 동선 정보와 뒤에서 생성한 인간의 언어 정보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통합되면 '감각'과 '해석' 그리고 '표현' 과정이 단일 체계로 연결되는 데, 이것이 시각정보에 대한 지능이 실질적으로 형성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또 다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마치 회화의 발달 과정과 유사하다. 대상의 실루엣과 동작을 묘사할 수 있게 되면, 다음 단계는 정밀한 장면 묘사를 위해 원근법과 같은 과학적 방식의 거리 표시가 이루어진다. 기계 또한 동작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기 위해 이러한 거리감 인식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서 주로 이루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은 '레이더', '라이더', '음파 측정'과 같은 방식이다. 초창기 자율주행 자동차의 거리 인식은 주로 차량에 탑재된 빛과 소리의 반사 정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후방에서 접근하는 물체에 대해 영상 촬영을 통해 움직임을 인식하고, 여기에 그 대상에 대해 반사된 정보로 거리 측정값이 더해지면, 마침내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어떤 속도로 접근해 오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하면서 주체가 되는 차량이 주변 대상과 접촉하지 않도록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났으며, 이것이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 기술이 되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레이더', '라이더', '음파 측정'의 거리 정보를 360도로 수집하여 대상 인근의 공간 구조를 파악해 내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이 감각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전쟁과역사 〈4〉

제국주의와 제1차 세계대전

대위 문준호
(교수부 군사사학교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확산으로 유럽은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번영을 이룩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무기체계가 개발되었고, 보편화된 징병제로 군대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사상적으로는 강자적자(强者適者)의 사회진화론에 기초하여 자본과 군사를 근저로 하는 제국주의가 태동하여 유럽 열강은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요컨대 전 세계의 서구화(Westernization)가 급격히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토 확장에 대한 무절제한 갈망은 국외지역에서의 충돌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군사적 낙관주의가 팽배하여 각국은 그들만의 청사진을 그리며 군비를 확장해 나갔다. 전술한 식민지 쟁탈과 군사력 확장은 곧 제1차 세계대전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한편 신흥 제국주의 국가들의 국제질서 재편 의지와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의지간의 충돌도 전쟁의 촉발원인이 되었다.

결국 과도한 군비경쟁과 위기의식 고조에 따라 각국은 독자적인 경쟁에서 승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집단적 보장책인 동맹과 협상에 집중하게 되었다.

오스만투르크 제국 분열 이후 발칸반도에서는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간의 민족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의 세계정책 추진을 위한 건함건설과 유럽대륙에서의 패권국 지위 확보 노력은 영국과 프랑스를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가 3국 동맹을 체결하였고, 영국-프랑스-러시아는 3국 협상을 형성하였다. 이윽고 1914년 6월 보스니아 수도에서 세르비아 비밀 결사단원에 의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피살되는 사라예보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과 독일의 지지, 영국의 중재 시도 실패와 이어진 각국의 선전포고와 동원령 선포로 대규모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양면전쟁을 대비해 온 독일은 동부전선에서의 러시아 견제 및 고착, 서부전선에 대한 병력 집중을 토대로 프랑스를 조기 격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구체화된 독일의 전쟁계획이 바로 슐리펜 계획이다. 특히 서부전선 주공방향인 메츠 이북으로의 대우회기동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향후 小몰트케에 의해 수정되어 주공방향으로 병력을 집중할 수 없었고, 조공방향에서 적을 유인하지 못해 프랑스군 주력에 대한 일익포위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독일이 6주라고 판단했던 러시아의 동원은 2주 만에 이루어져 마주리안 호수까지 러시아 1군과 2군이 진격하였고, 독일군은 비스툴라강까지 후퇴할 기로에 섰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지휘부와 8군 작전참모였던 호프만의 작전계획으로 탄넨베르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참모총장인 小몰트케도 동프로이센 영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부전선에서 전과확대를 위해 투입되었어야하는 예비대 정예 2개 군단을 동부전선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이동하는 동안 탄넨베르크에서 8군이 러시아군을 섬멸했기에 해당 병력들은 유병화(遊兵化)되었다.

서부전선 마른에서는 병력배치의 수정에 따라 밀도가 헐거운 상태로 기동했던 독일 1군과 2군 사이로 영국군이 진출하여 후방 차단의 위협을 느낀 독일은 엔강 일대로 철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영불해협으로부터 스위스까지 약 1,000km의 참호선이 형성되었고 지루한 장기 소모전으로 전쟁은 변질되었다. 특정 지점에 병력을 집중시켜 전선을 와해시킨다는 목적아래 독일은 Verdun전투를 일으켰고, Verdun에서의 독일군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 영불연합군은 전차를 투입하며 솜에서 공세를 가했다. 한편 이프르에서 독일은 포병사격 간 염소가스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전술한 무력충돌은 무참한 살육전의 대표적 전투들이다.

이후 해상에서 전개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전으로 루스타니아호가 침몰하자 미국은 퍼싱을 원정군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참전하였다. 한편 레닌의 활약에 힘입어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며 독일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영토를 할양하였다.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가 이탈하자 전쟁지도의 최고책임자격이었던 루덴도르프는 동부전선 병력을 전환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5차례에 걸친 총공세를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기습과 돌파를 바탕으로 보포협동 공격인 후티어 전술로 승리를 갈구했으나, 프랑스 구로장군은 종심방어 전술을 고안해내며 대응하였다.

정부의 전쟁지속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민중에게 확산된 염전의식으로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결국 독일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종전을 위한 강화회의 결과로 베르사유 체제가 수립되었다. 그 결과로 독일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 영토 손실, 군비 제한이 부과되었으며, 세계전쟁 방지를 위해 국제연맹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 국민과 전 자원이 동원된 총력전이었다. 또한 보조적 역할에 불과했지만 전차, 항공기 등이 출현하는 등 무기체계에 있어 큰 폭의 발전을 이끌었다. 한편 현대 공격전술과 방어전술의 기본개념 확립에 기여한 전술상의 도약적 발전도 있었다. 요컨대 인류가 처음으로 맞이한 세계규모의 무력충돌은 향후 새로운 군사이론 체계 성립과 가변요인의 발달에 기여하며 새로운 양상의 전쟁을 이끌게 되었다.

지역문화탐방 〈3〉

안강-기계지구 전투 지역을 가다

▲ 학도의용군 전적비

6·25전쟁 발발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 대항하여 수많은 전투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켜냈다. 그 중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일대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그 중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었던 전투, 안강-기계지구 전투에 대해 알아보고자 안강·기계지역 일대를 돌아보았다.

격전지였던 기계·안강 지역에는 전투가 치열했던 만큼 전적비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우선 황량한 안강 평야 들판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전적비는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 참전 학도병이 글을 짓고 부지를 기증하면서 세워졌다. 전적비 내용을 보면 당시 이 지역이 얼마나 치열했던 격전지였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6·25 안강-기계지구 학도의용군 전적비'는 마치 70여 년 전 조국을 위해 전선으로 뛰어든 학도의용군의 의연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안강-기계지구전투

기계-안강지구 전투는 국군 수도사단이 1950년 8월 9일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여간 안강, 포항, 경주 일대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 전투이다.

▲ 육통리회화나무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다 보면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를 볼 수 있다. 나무의 나이는 650년 정도이고 높이가 17m, 둘레가 무려 5.9m에 이르는데, 마을의 수호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마을 입구에 회화나무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고려 공민왕 때 김영동이란 젊은이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북으로 홍건적이, 남으로 왜적이 침입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노략질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돌고 젊은이는 19세의 나이에 출전할 것을 결심하고 이 나무를 심은 다음 부모님께 하직인사를 하며 "소자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나무를 자식으로 알고 잘 가꾸어 주십시오." 하고 떠났으며, 왜구와 싸우다 전사하고 부모는 이 나무를 유언 그대로 정성들여 가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차량으로 5분을 이동하면 '6·25전쟁 격전지 안강-기계지구 전투 전적비'라는 한글로 된 비문이 뚜렷이 눈에 들어온다. 전적비 바로 옆에는 국군과 학도의용군이 소총을 든 채 북쪽을 향해 아직도 의연히 북한군과 맞서고 있다. 이곳 전적비는 1950년 8월 9일부터 약 45일 동안 이 지역에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8일에 50사단과 포항시, 학도의용군 전우회가 합심하여 조성하였다.

▲ 안강-기계지구 전투 전적비

전적비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우리는 당시 용사들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그들의 감투정신(敢鬪精神)을 길이 전하고자 전적지를 건립하였다" 한번쯤은 군인이 될 입장에 있는 사관생도로서 국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안강·기계지역 가볼만한 곳

옥산서원 : 강에 있는 조선전기 이언적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흥덕왕릉 : 안강 외곽지역에 있는 신라 제42대 흥덕왕을 모신 왕릉

55기 기자생도 고명환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건강상식

영동한의원원장 김 경 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 타지에서 여름 날씨와 맞서는가 하면 또한 일터에서 한여름의 열기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더위를 이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첫째로 기억해야할 것은 수분섭취이다. 알게 모르게 땀으로 나가는 수분의 양이 상당하다. 30℃가 넘는 기온에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면 하루에 2L 이상의 땀을 흘리게 된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다. 이렇게 많은 양의 땀을 지속적으로 흘리게 되면 정신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로감을 쉬이 느끼게 된다. 이럴 경우 빨리 수분과 필수 무기질을 보충해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더운 날씨에 체력이나 기력이 떨어질 때 사용했던 지혜로운 처방이 있다. 생맥산과 제호탕이 바로 그것이다.

생맥산은 인삼, 맥문동, 오미자를 차처럼 다린 것으로서 시원하게 해서 수시로 마시면 된다. 이는 현대의 이온 음료와 같은 효능이 있으며 건강에 좋은 자연 음료라고 볼 수 있다.

제호탕은 오매, 백단향, 사인, 초과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꿀을 넣고 끓인 것인데 냉수에 타서 마시면 갈증이 풀리고 정신이 맑아지는 효능이 있다. 이것들은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하사할 정도로 귀하고 좋은 여름철 보양식이다.

또한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계절이다. 계절적 특성으로 찬 음료나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에 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예민해져 쉽게 설사나 배탈이 나기 쉬운 계절이다.

식중독은 세균이나 독소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한다. 짧은 시간이라도 외부에 보관한 음식물은 쉽게 상하여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다. 여름철에는 생선회나 어패류 등을 생으로 먹는 것을 피하고 익혀서 먹어야 한다. 식품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조리기구도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열로 소독하여 사용해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는 것도 여름철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외에도 격렬하지 않은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여 기본체력을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면 피로를 잘 느끼지 않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운동은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고 고혈당, 고지혈 등 생체 건강지표를 향상 시킨다. 의욕적인 생활과 왕성한 활동은 운동을 통한 기본적인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다가오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자.

634 메아리 (4) 마태식

독자투고

명문가(名門家)를 찾아서

㉕신녕(新寧)지역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서

3.1만세운동의 발자취를 찾기로 한 세 번째 연재 기사는 현재는 영천시에 편입되어 있는 가까운 신녕에서 그 소재를 찾아보았다.

'명문가를 찾아서'에 큰 도움을 주신 전민욱 선생님께 1주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리고, 금요일 오후에 시간을 약속하여 선생님을 모시러 갔다. 오전 내내 흐리던 날씨가 출발과 동시에 부슬비로 바뀌었다. 영천 시내에서 출발하여 군위로 이어지는 외곽도로로 시원하게 20여 분쯤 달리다보면 신녕에 도착한다. 개인적으로 신녕은 선영(先塋)이 있는 곳이라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남다르다. 영천에서 가까운 곳이기는 하지만 일 년에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들르지 못하는 애잔한 곳이다.

▲ 영천 3.1 독립운동 발원지 기념비

외곽도로에서 신녕 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신녕초등학교가 있다. 신녕초등학교는 1909년 4월에 개교한 상당히 오래된 학교이다. 현재는 학생 수가 73명, 교원 수 14명에 불과하지만 신녕의 역사와 함께한 학교라고 한다.

특히 3.1운동 당시 신녕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신녕초등학교의 재교생들이라고 한다. 지금의 초등학교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 신녕초등학교(신녕공립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연령은 만 18세를 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신녕 지역의 3.1운동사를 조금 살펴보면, 김준운(金俊運) 선생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김준운 선생은 1919년 4월 6일 오후 1시경 당시 영천군 신녕면 완전동 부근 냇가에서 신녕공립보통학교 생도 황정수 외 수십 명에게 4월 8일 신녕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시위를 거사하니 참가하도록 설득하였고, 같은 날 밤 9시에는 왕산동 교회 허석군을 찾아가 신도들도 독립운동을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신녕 지역의 만세운동은 지금의 초등학교 학생과 기독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김준운 선생의 당시 나이는 65세였으며 당시 신녕공립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아들 김호용 선생 역시 만세운동을 같이 준비하였다. 즉 나이의 고하를 불문하고 독립의 염원은 동일하였던 것이다. 불행히도 만세 운동은 사전 적발되어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못하였고, 김준운 선생은 재판을 받고 1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현재 신녕초등학교는 예전의 모습이 아닌 현대 건축물로 바뀌었지만, 학교 기념관에는 오래된 학교의 전통과 애국 활동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 평상시에는 잘 개방을 해주지 않는 곳인데, 취재의 취지를 말씀드리니 교감선생님께서 흔쾌히 기념관을 개방해 주셨다.

▲ 애국지사 김준운 선생 기념비

학교 기념관에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확인 한 후, 학교 바로 뒤에 있는 성환산 공원으로 향했다. 성환산 공원에는 김준운 선생을 비롯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애국지사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으며, 또한 6.25전쟁 당시 신녕지구전투에서 활약한 6사단 장병들을 승전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같이 조성되어 있었다. 잠시 동안 애국지사들과 전몰장병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장소인 신녕 장터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한 뒤 학교로 복귀하였다.

중령 최 재 호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19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19.6.16~'19.8.15까지 2개월간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74억 (2019.8. 15 기준)

■ 일반인 / 단체 : (주)두림야스카와 1,000(5,000), 조재 묵 5(195)

■ 3사관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軍간부

이근양(육사#3) 50(400), 정한기(육사#39) 2(73), 최완규(육사#44) 2(3), 김호길(육사#48) 2(29), 홍성아(육사#48) 2(14), 김태욱(육사#51) 2(6), 두석주(육사#51) 2(137), 최정욱(육사#51) 2(8), 이우진(육사#54) 2(40), 박기홍(육사#55) 2(100), 이승규(육사#56) 2(21), 조상근(육사#56) 2(114), 변용성(육사#58) 2(79), 소병민(육사#58) 2(6), 손창호(육사#58) 2(47), 이귀현(육사#58) 2(73), 이주실(육사#58) 2(58), 차도완(육사#58) 2(32), 김대영(육사#59) 2(140), 김진찬(육사#61) 2(43), 홍희종(육사#61) 2(75), 이한우(육사#63) 2(3), 오민경(육사#65) 2(18), 홍인재(육사#65) 2(8), 최병권(육사#66) 2(7), 문준호(육사#67) 2(22), 이찬우(육사#68) 2(18), 권성진 (육사#69) 2(6), 부형준(육사#69) 2(33), 조경근(육사#69) 1(1), 이진호(학군#24) 2(61), 한덕수(학군#26) 2(75), 고성진(학군#31) 2(9), 구희곤(학군#32) 2(82), 유명근(학군#36) 2(57), 전성권(학군#36) 2(44), 곽홍렬(학군#37) 2(8), 송경재(학군#37) 2(102), 조환희(학군#41) 2(16), 황태열(학군#41) 2(31), 김재윤(학군#43) 2(30), 김광윤(학군#44) 2(28), 이종민(학군#44) 1(3), 김태룡(학군#48) 2(20), 이세훈(학군#48) 1(1), 민병구(학군#48) 2(8), 김민범(학군#49) 2(2), 박동선(학군#49) 2(4), 윤정훈(학군#50) 2(5), 김동진(학군#51) 2(28), 구민수(학군#52) 2(61), 유강인(학군#52) 2(20), 황가영(학군#54) 2(13), 박주오(학사 #7) 2(91), 최재호(학사#29) 2(102), 최용식(학사#33) 1(4), 이준수(학사#35) 2(86), 장혜익(학사#46) 2(3), 김영각(학사#49) 2(20), 김효곤(학사#49) 2(5), 김미봉(학사#54) 2(37), 임도현(학사#54) 2(81), 구주현(학사#55) 2(4), 이혜지(학사#55) 2(26), 성현애(학사#56) 2(24), 전여울(학사#58) 2(32), 심정현(학사 #58) 2(12), 차성복(여군 #45) 33(138), 최순조(여군#46) 2(31), 서나한(여군#47) 2(21), 강소영(여군#49) 2(15), 이희정(여군#49) 2(15), 김형태(단기#22) 2(32), 유현성(단기#26) 1(13), 김세영(단기#28) 2(21), 박승재(단기#30) 2(6), 강찬영(군종#61) 2(8), 김가람(교수#18) 2(14), 신하영(교수#18) 1(13), 양웅석(교수#18) 2(14), 이지성(교수#18) 1(13), 정영진(교수#18) 2(14), 최우혁(교수#18) 2(14), 최윤정(간호#38) 2(17), 김동중(중사) 1(13), 이가현(하사) 2(7), 이각우(원사) 2(32), 전경억(원사) 2(46), 우의택(상사) 2(57), 진장철(상사) 2(51), 전병열(중사) 2(21), (군무원) 김영건 2(56), 김인수 2(14), 류재운 2(170), 안영주 2(20), 양성우 2(42)

■ 졸업 · 재학생도 부모

▶ **졸업생 부모**(졸업 기수/관계)

윤종택(38부) 10(360), 이창주(42부) 4(242), 김종순(45부) 4(6), 조경해(45모) 10(685), 장순일(49부) 4(248), 성동모(50부) 4(156), 윤우상(51부) 2(66), 정경숙(51모) 2(66), 안순봉(51모) 20(150), 김현미(52모) 2(23), 양윤수(52모) 10(35), 이선화(52모) 10(505), 이영미(52모) 6(223), 정정화(52모) 2(317), 박일심(53모) 4(78), 조정숙(53모) 4(76), 홍성기(53부) 2(42), 황경부(53부) 20(410), 김동주(54부) 2(4), 윤명남(54모) 10(140), 이기성(54부) 6(91), 홍성은(54부) 4(212)

▶ **4학년 학부모**(가나다순)

고창희, 김상균, 김동환, 박철, 서완수, 유현구, 윤연희, 이강천, 전근화, 정수태, 정신자, 정원섭, 한순옥

▶ **3학년 학부모**(가나다순)

강용도, 강현권, 김동환, 김원태, 김지현, 김종기, 김현덕, 김효수, 양동희, 이정숙, 이웅계, 원종락, 오치중, 유진권, 장순복, 정희숙, 천선희, 최동옥

※ 재학생 학부형 기부현황은 재단홈페이지(www.kaayf.or.kr) 내 기부내역에서 확인가능하며 기부관련 문의는 사무국(054)330-3180으로 연락바랍니다.

■ 신분 미확인 : 김시우 1(1)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 **1기** 김용하 2(107), 남훈조 21(1,094), 임관택 2(56), 전수천 2(72), 최익환 2(58)
▶ **2기** 윤경혁 10(510) ▶ **3기** 김성관 10(10), 장영집 5(215)
▶ **9기** 권영호 10(275), 김현기 10(1,093), 윤지환 6(69), 최병학 10(1,110)
▶ **10기** 권동환 10(195) ▶ **14기** 김종환 2(32), 안호 20(1,580), 하병옥 2(346)
▶ **15기** 김성언 5(301)
▶ **16기** 이종우 2(135), 황병태 4(268)
▶ **18기** 구연덕 2(104), 금용백 6(498)
▶ **19기** 이경희 2(148), 이종형 2(213), 이창효 6(504), 임종철 2(41), 홍성식 2(174)
▶ **20기** 김윤회 2(42), 박권순 2(123.4), 서정열 20(405), 조길상 4(44)
▶ **21기** 신철수 4(586), 장달수 2(83)
▶ **22기** 권순태 2(28), 이진성 2(236), 정경호 2(20), 조태환 2(112)
▶ **23기** 김창수 4(192), 김태일 2(204), 배요식 2(118), 신영찬 2(47), 정철재 4(88), 허강수 2(197)
▶ **24기** 강현권 50(150), 곽종만 4(4), 권금락 4(236), 권오봉 2(189), 김도협 2(208), 남용구 4(236), 모경원 2(203), 박세철 2(47), 방성대 2(57), 안언준 2(70), 이문휘 2(70), 유진권 10(10), 정정현 2(167)
▶ **25기** 김남용 2(110), 김민정 2(118), 김희식 2(187), 문봉성 2(128), 서쌍권 2(42), 손영기 2(108), 이종헌 2(27), 장광선 6(306), 장무수 1(25), 전희준 2(281), 조재희 2(99), 홍은표 2(177)
▶ **26기** 고창준 2(124), 김영선 4(372), 박윤옥 2(181), 신충인 4(151), 유근환 2(10), 이완주 4(81), 이태인 4(14), 임우영 2(220), 장용빈 4(82), 홍순범 2(186)
▶ **27기** 김덕중 2(44), 김호복 2(176), 석수열 2(22), 안병욱 2(145), 원희문 10(125), 이회순 2(223)
▶ **28기** 권승영 1(12.5), 권양철 2(84), 김진길 2(56), 박기수 2(67), 박용섭 4(125), 서청수 2(148), 유정일 2(17), 윤석찬 2(116)
▶ **29기** 강봉중 100(500), 김강식 2(221), 김용식 2(50), 박성훈 2(129), 박태용 2(108), 이상일 2(164), 이상태 4(180), 이의규 2(91), 임성호 2(140), 최인섭 2(102), 현태식 2(126)
▶ **30기** 김백중 2(14), 김종권 2(60), 김효성 2(20), 남진오 2(31), 이진 2(125), 임상달 2(95), 주경호 2(89), 홍성범 2(13), 함민호 2(76)
▶ **31기** 권동호 4(14), 김민식 4(50), 김영태 2(157), 김희엽 2(202), 염항수 2(111), 이재춘 2(186), 이흔복 2(24), 유광현 1(13), 최대집 2(22), 전경인 2(9)
▶ **32기** 권관덕 6(263), 김화용 2(89), 이태현 2(24)
▶ **33기** 고희용 2(9), 김남식 2(139), 김상선 2(116), 김성수 2(202), 김현규 4(341), 남석진 2(113), 노일 6(89), 안경일 2(210), 안준영 6(56), 조우철 2(139), 조재봉 2(86)
▶ **34기** 권성진 2(107), 김기수 2(156), 김윤성 2(21), 김홍식 6(363), 박필수 2(2), 신정원 2(42), 임창훈 2(56), 정웅민 4(163), 정창근 2(82), 정춘황 2(32), 조수창 2(157), 홍영기 1(1)
▶ **35기** 김병수 2(54), 김수열 2(45), 박병준 6(236), 박상우 4(71), 박시근 2(159), 송명성 4(12), 손득준 2(65), 이문희 2(125), 임창규 2(83), 장춘삼 2(120), 전기홍 2(54), 전성광 2(13), 정영석 2(81), 정호준 4(46), 장영아 2(11), 한종훈 4(319)
▶ **36기** 고마운 2(21), 김강민 2(15), 김도희 4(6), 김명규 2(44), 김현 2(104), 길문수 2(49), 안경무 6(196), 양현승 2(182), 이광희 2(126), 이규호 2(91), 이덕재 2(54), 이호진 2(217), 임종수 2(46), 장세호 2(177), 정우철 2(112), 조동권 2(192), 진연수 2(137), 최준호 2(3)
▶ **37기** 강성봉 2(143), 김남훈 2(175), 김양훈 6(165), 김지민 2(59), 김충기 4(58), 김홍년 2(208), 노진철 2(122), 송석봉 4(103), 송용섭 4(237), 안홍선 2(212), 옥원호 2(108), 이관모 2(114), 이원형 4(227), 이희석 2(93), 임원철 2(140), 임연준 2(10), 전성진 2(103), 정우진 2(46), 정태욱 4(64), 정회철 2(102), 최정호 2(13), 함성규 2(79), 허지용 2(43)
▶ **38기** 김대현 1(1), 모율하 2(202), 문정민 2(92), 문현성 2(205), 서성걸 2(49), 서현호 2(206), 송태영 2(51), 신상윤 2(103), 이경식 2(152), 이상복 2(5), 이정용 4(180), 정한옥 2(183), 함기훈 2(60)
▶ **39기** 강병현 2(187), 김병일 2(43), 김의진 2(101), 김인경 2(53), 박철균 2(56), 송진근 2(56), 송창현 4(32), 심용운 2(58), 이대화 2(187), 이웅렬 2(45), 이종화 2(184), 이준석 2(50), 이학수 3(25), 정대겸 1(1), 최현철 2(248)

▲ 40~54기 개별 기부현황은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앱』에서 확인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 참여 안내

■ 기부참여 계좌 :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기업/개인명의 기부가능, 세금감면용 기부영수증 발급

■ 참여방법

• 현금, 부동산, 주식 등 현금화 가능한 모든 재화
• 계좌입금 후 재단으로 관계 및 주소/연락처 통보
• 최초 기부자는 관계통보 필수 (동명이인 혼선 방지)
• 기부방법 : 일시불, 약정 후 분할, 월자동이체 모두 가능
•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용 금융어플 이용, 은행방문 신청
충성대앱 이용 신청 가능 (신청 후 관계 통보)

■ 문의처 : 군) 952-3180 일반) 054-330-3180, 3182 (평일 08:30~17:00)
홈페이지 www.kaayf.or.kr, "충성대" 앱(APP)

"학교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나의 작은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약 100년! 학교발전기금 동참이 그 첫걸음이 됩니다!"

제17회
지상군 페스티벌

충남 계룡대 비상 활주로
2019년 10월 2일 (수) - 6일 (일)

평화의 길 기획전시 | 미래 전투상황 시연 | 무기/장비 전시와 기동시범
병영훈련 체험 | 드론 경연대회 | 육군 퍼레이드 및 각종 공연